

# 재보선·총선서 재기 노리는 DJ맨들

조순용 순천 보선에 출사표

김홍업 무안·신안, 전갑길 광산  
최경환 북을, 장성민 고흥 도전



조순용 전 수석 김홍업 전 의원 전갑길 전 의원 최경환 전 비서관 장성민 전 의원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DJ) 측근들이 정치적 재기를 노리며 광주·전남지역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의 정치권 진입 및 재기가 성공한다면 친노(친 노무현 대통령) 그룹과 함께 호남을 기반으로 한 DJ 그룹이 민주당의 양대 축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 주자로 나서는 DJ 맨은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순용 전 청와대 정부수석이다.

영원한 DJ 맨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은 이번 재보선에서 국회에 진입, DJ의 정치철학 계승과 정권 교체 실현하는데 초석이 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DJ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도 내년 총선에서 무안·신안 지역구에 재도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르면 오는 3월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 사업회'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총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며 "DJ의 정신과 철학을 발전시키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구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DJ 비서 출신인 전갑길 전 의원도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에 출마한다.

16대 국회의원과 광산구청장을 지내며 다져온 바닥이 튼튼하다는 점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정부 청와대에서도 DJ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최경환 전 비서관도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을 지역구에 도전한다.

최근 '김대중 리더십'이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는 최 전 비서관은 "이제 DJ의 정신과 가치, 정책, 리더십에서 미래의 비전을 그려야 한다"며 "시대는 '젊은 DJ'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출마 의지를 나타냈다.

국민의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장성민 전 의원은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내년 총선에서 고흥·보성 지역구에 도전할 계획이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장성민 전 의원은 대북정책 등 외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DJ 맨들의 활발한 정치 행보 배경에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성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내용이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인정받으면서 DJ 맨들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DJ 이후, 정치적 리더십 부재에 대한 지역민심의 갈증과 변화에 대한 바람도 DJ 맨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 DJ 맨들의 정치적 재기가 성공한다면 친노 그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의 중도 성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친 DJ 그룹과의 융합 등을 통해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노 그룹은 정치적 가치와 비전을 함께 하며 단결력이 강한 반면, DJ 그룹은 정치적 연대가 약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적 세력으로 성장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권에서의 DJ 그룹은 현재 구심점과 가치적 연대 부족 등으로 지리멸렬한 상태"라며 "내년 총선에서 DJ 맨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한다면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전 3·1절 기념식장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靑 “영수회담 제의” 민주 “의례적 표현”

李대통령, 손학규 대표에 ‘회동’ 언급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식장에서 만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인사하는 과정에서 '회동'을 언급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사실상 '영수회담' 제의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안부를 묻는 수준'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앞서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정당 대표, 4부요인, 종단대표 등과 환담했고 이 때 손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언제 한번 봐요'라고 말했고 이에 손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환담장 바로 옆 자리에 있던 손 대표에게 "내가 손학규 대표 잘 모셔야지요"라고 말하고 환담장에 준비돼 있던 케이크를 덜어서 직접 손 대표에게 건네면서 "아침 식사 하셨느냐"며 관심을 표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손 대표에게 청와대 회동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영수회담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번 만나자'고 제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불쾌하다는 표정이다.

우선,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만난 장소나 상황이 영수회담을 논할 성격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영수회담은 나름대로 절차와 예의 등이 갖춰야지 복도에서 만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손 대표가 이 대통령의 말에 그저 웃기만 했을 뿐 '예'라고 답변한 적이 없다는 입장에서 나타내고 있다.

양승조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환담내용과 관련, "이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었다"며 "손 대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영수회담을 제의해야 한다"며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한번 만나자' 식으로 제의하는 것은 예의에도 벗어나고 오히려 영수회담 성사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해외문화재 환수 재단 설립’ 제안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제 92주년 3·1절인 1일 외국에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정부 내에 '문화재 환수 전담조직'을 두고 민간 차원의 '해외문화재 환수 재단'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로 방송된 대표 연설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무려 11만 7000여점에 이르며, 대부분은 문화재 환수가 쉽지 않고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화재 환수) 문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포석이 필요 하다"면서 "정부 내 문화재 환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울 때는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해외경매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민간의 노력도 모아야 한다"면서 '해외문화재 환수 재단' 설립 필요성을 밝혔다.

안 대표는 아울러 "문화재 환수를 지원하는 제도의 재정비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도 의원외교를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여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野 ‘후보난’ 與 ‘후보 난립’ 분당을 ‘고민되네’

4·27 재보선이 50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공천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난을 겪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후보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김병욱·김종우 예비후보 외에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계안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 언급되는 후보를 맞상대를 하기에 경쟁력도 밀린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아직 후보 윤곽조차 잡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손학규 대표는 최근 "분당은 천천히 찾아보자"고 말했다.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치러지는 분당은 한나라당 당세가 강하고 지역 유권자들도 거물급 인사를 선호하는 분위기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는 오히려 '강남 좌파'가 통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1989년 방북사건의 주인공

김영민 임수경씨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영춘 최고위원 등의 이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후보가 많아 고민이다. 공천심사위원단 원희룡 사무총장은 1일 분당을 공천과 관련, "골치가 좀 아플 것 같다"면서 "솔직히 분당을 공천은 오히려 부담"이라고 말했다.

후보가 많은데도 한나라당이 고민하는 것은 강제지역인 이곳에서는 반드시 이거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탓이다. 현재 강제지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의원이 지난 1월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일제강치 표 발발이 들어간 상황에서 '거물 투입론' 속에 정운찬 전 총리의 이름도 계속 거명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정 전 총리가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조순산·정욱임·배은희 의원 등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까지 거론되고 있다. 확실한 승부수를 찾기 위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비지원/일반인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3월 [5월(토) 주말반] 대개강**  
[본원 교수진 동영상 강의 무료보강]  
[www.egos.co.kr](http://www.egos.co.kr)

★농업인·축산업·임업인 특별혜택★  
◆ 언제든 청강 환영!  
[서승철경영박사, 김세미농학박사, 윤종하(전)풍관원, 초대농협수협회장, 손승운, 송상호, 전창훈교수진]  
◆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손승운 교수팀 직강

**전농업전문원 0226-5050**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학원기입구, 광주고시학원건물1층(동부경찰서서 전남여고 쪽)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 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환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김정수)

**청소 및 건축물 종합 관리**

저희 (주)대진용역은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업체만의 체계적인 업무처리 시스템과 각 서비스별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주)대진용역의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대진용역의 서비스 —

- 청소 용역: 입주청소, 준공청소, 상주청소
- 소독 용역: 소독 및 바퀴벌레·개미·해충 박멸
- 경비용역: 시설경비, 경호업무
- 심부름: 잔심부름, 개인업무
- 대리운전: 장거리 운행 및 일, 월 대리운전

**(주) 대진 용역**  
TEL 062)372-2332, 371-6644 FAX 062)376-8949

경비원 및 청소원, 운전기사 모집 및 알선 해 드립니다.  
모집인원 : 경비인원 00명, 청소인원 00명, 운전기사 00명

**대상**

2011년 2월 4일 SBS 주관  
**전국동안대회 대상**  
2011년 2월 24일 SBS 좋은아침 방송  
**이계남 신비 건강 재활원**

**심근경색 · 파킨슨병  
잠수병 · 혈관질환 · 허약체질**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동요법만으로  
본인도 놀랄만큼 단 시일내 치유됨!!

**062)951-5511 · 016-9578-7777**